매출 늘었는데 손실도 늘어… 온라인 車보험사 '손해율 허덕'

악사·하나 손보 온라인 전용 2곳
상반기 원수보험료 전년비 8.7%↑
전체 손보사 증가율 4.2%의 2배수준
보험손실 규모 570억 69% 늘어
외형확대, 수익성개선 연결 '과제'

Chat GPT가 생성한 이미지.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p)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a)	'26.上(b)	증감(b-a)
대형사(4개)	84.9	85.3	85.3	85	84.8	△0.2
중소형사(5개)	8.9	8.4	8.3	9.4	11	1.6
비대면전문사(3개)	6.2	6.3	6.4	5.6	4.2	△1.4

주) '26년 상반기 비대면전문사는 악사·하나 등 2개사

자동차보험 가입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지만 비대면전문사의 수익성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악사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의 올 상반기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보다 8.7% 늘었지만 자동차보험 보험손실은 570억원으로 1년 새 68.6% 확대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차보험 원수보험료는 10조638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이버마케팅(CM)과 플랫폼(PM)을 합친 온라인 판매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37.9%에서 올해 39.3%로 1.4%포인트(p) 높아져 40%에 육박했다.

◆ 온라인 판매 40% 육박

온라인 판매 확대와 함께 비대면전문사의 외형도 성장했다. 금감원은 전화판매(TM)와 CM 등 비대면채널 매출이 대부분인 악사손보와 하나손보를 비대면전문사로 분류하고 있다.

금감원 회사별 원수보험료를 동일 회사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두 회사의 원수보험료 합계는 지난해 상반기 4066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4418억원으로 8.7%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 증가율 4.2%의 두 배가 넘는다. 악사손보의 원수보험료는 2849억원에서 2953억원으로 3.7%, 하나손보는 1217억원에서 1465억원으로 20.4% 늘었다.

금감원 시장점유율 표만 보면 비대면전문사 비중은 2025년 5.6%에서 올해 상반기 4.2%로 1.4%포인트(p)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수치에는 캐롯손해보험이 포함된 반면 올해는 악사손보와 하나손보만 포함됐다. 캐롯손보가 지난해 10월 한화손해보험에 흡수합병되면서 비교 대상이 3개사에서 2개사로 줄었고, 비교 기간도 2025년 연간과 올해 상반기로 서로 다르다.

같은 상반기·동일 회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악사손보와 하나손보의 시장점유율은 3.98%에서 4.15%로 약 0.17%p 상승했다. 표면적인 점유율 하락을 비대면전문사의 영업력 약화로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다.

◆ 점유율 4.2%, 보험손실 30.8%

문제는 수익성이다. 두 회사의 자동차보험 보험손실은 지난해 상반기 338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70억원으로 232억원 늘었다. 손실 규모가 1년 만에 68.6% 확대된 것이다. 금감원 잠정치를 단순 환산하면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4.2%지만 업계 전체 자동차보험 보험손실 1848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8%에 달했다.

비대면전문사의 올해 상반기 손해율은 90.8%, 사업비율은 25.8%로 합산비율이 116.6%에 달했다. 경과보험료 100원당 발생손해액과 사업비가 116.6원 발생했다는 의미다. 대형 4개사의 합산비율 100.6%보다 16.0%p, 중소형사 107.1%보다 9.5%p 높다.

특히 비대면전문사의 사업비율은 대형사 16.1%보다 9.7%p 높았다. CM·TM 등 비대면 판매 중심의 사업구조가 곧바로 비용 우위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형 확대를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전문사들의 과제가 된 셈이다.

회사별로는 악사손보의 손실 확대 폭이 컸다. 악사손보의 손해율은 88.7%에서 89.2%로 0.5%p 상승했고 보험손실은 140억원에서 346억원으로 206억원 늘었다. 비대면전문사 전체 손실 증가액 232억원의 대부분이 악사손보에서 발생했다. 하나손보는 손해율이 94.3%에서 94.1%로 소폭 낮아졌지만 보험손실은 198억원에서 224억원으로 확대됐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손실 확대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함께 상반기에 시행한 특별퇴직 프로그램, 자동차보험 재보험 계약 종료에 따른 출재보험수수료 감소 등이 반영됐다"며 "이들 요인은 일회성 성격의 사업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사고 건수는 4.5% 감소했지만 발생손해액은 2.8% 증가했다. 병원치료비 등 인적 보상과 정비공임 등 물적 보상이 함께 늘어난 영향이다. 업계 손해율은 83.3%에서 84.9%로 상승했고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한 합산비율은 손익분기점인 100%를 넘어 101.9%를 기록했다.

다만 투자손익을 더한 자동차부문 총손익은 2380억원 흑자를 유지했다. 보험영업에서 발생한 1848억원의 손실을 4228억원의 투자이익으로 만회한 결과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사고와 손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자동차보험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함께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수출물가 3.7%↓… 3년8개월 만에 최대 낙폭

〈전월대비〉

한은, 8월 수출입물가·무역 지수
월평균 환율 1406원… 6.1% 하락

지난달 수출물가가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3.7% 하락했다. 지난 2022년 12월 -6.1% 이후 3년 8개월만에 최저치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원화기준 8월 수출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42.4% 상승했다. 지난 7월 48.9% 상승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했다.

8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06.30원으로 지난 7월 1497.43원 대비 6.1% 하락했다. 환율 영향을 제외한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는 전월보다 2.2% 올랐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전월대비 2% 하락했다. 공산품의 경우 경유(2.8%), 제트유(2.4%) 등 석탄및석유제품이 올랐으나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3.7% 하락했다.

품목별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는 전년 동월 대비 113.2% 뛰었다. 이 가운데 D램과 플래시메모리 가격은 각각 253.4%, 250.6% 급등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도 65.9% 올랐다.

반면 8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보다 2.4% 하락해 세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가 상승했으나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서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5.6% 상승했다.

월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7월 배럴당 76.75달러에서 8월 88.75달러로 15.6% 급등했다. 이에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원재료가 전월대비 1.5% 상승했다.

석탄 및 석유제품 수입물가도 전월 대비 3.6% 올랐으나 화학제품(-6.1%), 1차금속제품(-4.2%)을 중심으로 중간재는 4% 하락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도 각각 4.2%, 4.4% 하락했다.

8월 수출물량지수는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이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25.9% 상승했다. 수출금액지수는 75.8% 뛰었다.

수입물량지수도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기계및장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12% 상승했다. 수입금액지수는 23.1% 올랐다.

/김주형 기자

SC제일은행, 하이통장 연 4% 특별금리

연내 가입시 3.4%p에 우대금리 적용

SC제일은행이 고금리 수시입출금 통장 'SC제일 Hi(하이)통장'에 한시적으로 최고 연 4.0%의 특별 금리를 제공한다.

SC제일은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SC제일 Hi(하이)통장'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 예금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연 3.4%포인트(p)의 특별금리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금리와 우대금리를 모두 충족하면 최고 연 4.0%의 금리가 적용된다.

'하이통장(SC제일 Hi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상품으로, 기존 은행권의 파킹통장(고금리 수시입출금예금)과 달리 예치금 한도 없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또한 인터넷·모바일뱅킹 수수료, ATM 수수료 등 다양한 수수료를 면제해 자금 관리 편의성도 높였다.

이번 특별금리는 SC제일은행에 고객정보가 등록된 지 31일 이내인 신규 고객이거나, 기존 고객 중 최근 1년간 SC제일은행의 원화·외화 입출금 계좌 및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지 않았던 고객에 적용된다. 특별금리 종료일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2027년 1월 31일로, 가입 시점이 빠를수록 특별금리를 오랫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SC제일은행

특별금리를 제외한 하이통장의 기본금리는 연 0.1%다. 우대금리 요건은 ▲예금잔액 구간에 따라 연1.2%~2.0%p(이벤트 적용 시 금액 무관 3.4%p) ▲제휴채널 신규 연 0.1%p ▲마케팅 동의 시 연 0.2%p ▲프라이어리티 고객 등급 보유 연 0.2%p 등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기업자금 정기예금 유입… 통화량 12.7조↑

한은, 7월 통화·유동성

기업 여유자금과 파생상품시장 관련 자금이 정기예적금으로 유입되면서 지난 7월 시중 통화량이 12조7000억원 늘었다. 다만 증가율은 전월보다 낮아졌고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통화는 11조6000억원 감소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7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계절조정계열 평잔 기준 광의통화(M2)는 4225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증가율은 지난 5월 0.8%에서 6월 0.7%, 7월 0.3%로 두 달 연속 낮아졌다.

전년 동월 대비 M2 증가율도 6월 6.0%에서 7월 5.8%로 둔화했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에 만기 2년 미만 정기예적금과 머니마켓펀드(MMF) 등 비교적 현금화하기 쉬운 금융상품을 합친 지표다.

금융상품별로는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한 달간 27조3000억원 늘었다. 기업 여유자금과 파생상품시장 관련 자금이 유입된 영향이다. 반도체 기업 등의 예치자금이 늘면서 2년 미만 금전신탁도 11조4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27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납부로 기업 보유분이 감소한 데다 기업자금 일부가 정기예적금으로 이동한 결과다.

경제주체별로는 비금융기업의 통화 보유액이 20조6000억원 증가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6월 19조8000억원 감소한 데 이어 7월에도 11조6000억원 줄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기구 등이 포함된 기타부문은 6조3000억원 증가했다.

/김주형 기자

NH농협은행

개인투자 국채 도입 등 퇴직연금 운용 대전환

NH농협은행은 안정성 중심의 보수적인 퇴직연금 운용에서 벗어나 ▲개인투자용국채 도입 ▲ETF 라인업 확대 ▲전문가 포트폴리오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고객의 실질적인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은 9월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국채를 선보였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은퇴자금 마련을 지원하면서 수익성까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상품 사이에서 투자 대안을 고민하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형 기자

'중대 불법하도급' 국토부가 직접 처분

건설산업기본법·새만금사업법 의결

앞으로 중대한 불법하도급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린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시정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해 직접 처분 권한을 갖는 내용이다.

현재 불법하도급은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행정처분 권한은 모두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다. 국토부가 적발하더라도 지방정부에 처분을 요청하고 재조사를 거쳐야 해서 처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와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한다. 나머지 사항은 원래대로 지방정부가 맡는다.

/성채리 기자 cr56@